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8.11(금) ~ 2023.08.17(목)

제공일시 2023 08 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8.11(금) ~ 2023.08.17(목)

제공일시 2023 08 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미국 텍사스주, 전기차 충전소에 테슬라 규격 도입 의무화

- 미국 텍사스주가 테슬라의 충전 커넥터를 추가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일부 충전 업체들의 우려에도,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NACS(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를 전기차 충전소에 포함하도록 하는 계획을 승인했음
- 움베르토 곤잘레스 텍사스주 교통부 국장은 "(NACS와 CCS) 2개의 충전 커넥터는 텍사스주 안에 급속 충전 포트를 보유한 16만8000대 이상의 전기차의 최소 97%를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승인 배경을 밝혔음
- 정부로부터 4억780만 달러를 확보한 텍사스주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업체에 의무적으로 NACS 플러그를 포함하도록 할 방침임
- 켄터키주는 지난달 초,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테슬라의 NACS를 채택했음 테슬라의 충전 방식은 미국 표준으로 점점 자리 잡고 있음

(이투데이, 2023.08.17) 전아현 기자

### 2. 脫원전 앞장서던 스웨덴 "20년간 원자로 10기 건설할 것"

- 지난 1980년부터 탈(脫)원전 행보에 앞장섰던 스웨덴 정부가 향후 20년간 최소 10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 로미나 포우르목타리 스웨덴 기후 환경부 장관은 전날, 기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20년간 전력 생산량을 두 배 늘려야 한다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 현재 스웨덴은 3개 발전 단지에서 원자로 6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자로 10기가 추가로 건설되면 스웨덴의 원자력 발전량은 극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환경 전문가들은 이 계획에 반발했는데, 스웨덴 룬드대학교의 라르스 닐손 환경에너지 교수는 "우리에게 원자로 10기가 필요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며, "현재 스웨덴의 전력 생산 확대는 풍력 발전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음

(조선비즈, 2023.08.13) 유병훈 기자

### 3. S&P글로벌, 자연 및 생물다양성 리스크 평가 서비스 출시

- S&P 글로벌이 금융기관들을 위해 포트폴리오의 자연 관련 리스크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Nature & Biodiversity Risk' 포트폴리오 평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음
- S&P는 상장기업이 점점 더 자연 및 생물다양성 리스크에 집중하고 있음에 따라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음
- 지난해 12월 COP15 유엔 생물다양성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30% 생물다양성 회복 등의 목표를 세운 바 있음
- 이번 데이터셋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는 'The Ecosystem footprint(지반 측정'과 같은 자연관련 리스크 지표를 사용해 1만7000개 이상 기업, 160만개 이상의 자산을 대상으로 자연관련 리스크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함

(ESGToday, 2023.08.15) Mark Segal 기자

## 1. 韓-말레이 '탄소 포집·저장' K-드림팀 규모 확대

- 한국-말레이시아 CCS(탄소 포집·저장) 프로젝트 연합군에 한국석유공사, (주)한화, 에어리퀴드코리아, 쉘 등이 새롭게 합류했음
- 기존 참여사는 SK에너지와 SK에스온,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롯데케미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등임
- 참여사들은 지난해 8월 사업개발에 대한 MOU를 맺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임 국내 허브 부지와 말레이시아 탄소 저장소를 각각 1곳 이상 잠정 확정했음
- 참여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허브 부지와 말레이시아 탄소저장소를 추가로 모색하는 한편, 사업 계획의 보완·강화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을 이어 나갈 계획임

(머니투데이, 2023.08.11) 이세연 기자

(뉴스스, 2023.08.12) 이다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08.11) 이유범 기자

## 2. SMR로 열을 공급한다고?...원자력 열이용 협의체 발족

- 국책원자력연구기관과 민간기업들이 SMR(소형모듈형원자로)을 산업체 등의 공정열 생산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원자력연구원은 경상북도,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DL이앤씨, DL케미칼, 어프로티움 등 1개 지자체 및 11개 기업과, 원자력 공정열 신사업 창출을 위해 '원자력 열 이용 협의체' 출범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 원자력 공정열을 생산·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사업화 역량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임
- 원자력계는 원자력 열 생산·이용 시스템으로 고온 열을 이용한 암모니아 분해, 수전해 수소 생산, 고온증기 공급, 천연가스-증기 개질 등 다양한 산업적 용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상용화 돼 가동된 SMR은 아직 없고, 핵폐기물 처리나 안전은 미해결 상태임

(이투뉴스, 2023.08.12) 이상복 기자

(충남일보, 2023.08.11) 김현수 기자

## 3. 제주에 '전기저수지' 생긴다...첫 ESS 전력시장 개설

- 산업부는 오는 18일, 26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배터리 ESS 사업 입찰 공고를 내어 제주도에 '전기저수지' 역할을 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도입될 예정임
- 이번 입찰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물량은 제주도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수준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음
- 정부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앞으로 제주도의 첫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ESS 활용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
- 또 정부는 제주도의 첫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도입 사례를 향후 전국으로 ESS 보급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임

(헤럴드경제, 2023.08.17) 배문숙 기자

### 1. 美 웨브론 "저탄소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 투자"

- 미국의 석유기업 웨브론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의 저탄소 시범 프로젝트 2곳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음
- 웨브론은 약 20만 에이커 면적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토양 내 탄소 제거 시범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카본싱크(Carbon Sync)와 호주 디킨 대학의 블루 카본 랩(Blue Carbon Lab) 등의 다년간의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웨브론은 카본싱크와의 협력이 호주탄소배출권(ACCU)에 대한 기대 수요 충족에 도움이 될 정도의 큰 규모로, 토양 탄소 프로젝트와 관련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음
- 또한, 블루 카본 랩에 대한 투자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소금 습지, 맹그로브 및 해초 해양환경에서 블루 카본에 대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글로벌이코노믹, 2023.08.11) 이진출 기자

### 2. Rio Tinto, 캐나다 북부 대규모 태양광 발전 건립 착수...410만 달러 정부 지원

-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 리오 틴토(Rio Tinto)가 캐나다 북부 최대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착수함
- 최근 리오 틴토는 북극권 디아빅 다이아몬드 광산(Diavik Diamond mine) 광산에 공급할 전력 생산 계획을 발표했음
-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북서부 지역에는 2024년 상반기까지 약 4.2GWh급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며, 이를 통해, 디아빅 총 전력 수요의 최대 25%를 공급함
-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장소에는 약 55MW 크기의 풍력-디젤 하이브리드 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리오 틴토는 재생에너지 추가 확보를 통해 채굴 과정의 탄소 배출을 줄일 계획임
- 회사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00만 리터의 디젤 소비 감축과 2,900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예상했음

(인더스트리뉴스, 2023.08.15) 최용구 기자

### 3. 바이엘, GenZero, 셀에너지 쌀 농업 메탄배출 저감 프로젝트 시작

- 생명과학회사인 바이엘과 탈탄소 솔루션 투자플랫폼인 젠제로, 셀의 자회사인 셀에너지는 벼농사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음
- 새로운 협업은 원격감지기술을 통합한 MRV(측정, 보고, 증명)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포함하는 방식임
- 지난 2년 동안 바이엘이 재생농업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이를 더욱 확장하는 것임
- 바이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물 절약, 토양 건강 개선, 소규모 쌀 농가의 지역사회 생계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음

(ESGToday, 2023.08.17) Mark Segal 기자

### 1. 포스코, 호주서 '그린스틸' 자회사 설립

- 포스코홀딩스가 서호주 '포트 헤들랜드' 지역에 저탄소 원료 'HBI(Hot Briquetted Iron)'를 생산을 추진하는 법인을 설립했음
- 친환경철 생산에서 필수적인 HBI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해 환원한 직접환원철(DRI·Direct Reduced Iron)을 650°C 이상 고온에서 압축성형해 조개탄 모양으로 탈바꿈한 제품으로, 포스코그룹의 '전기로 프로젝트'의 핵심 원료임
- 그린스틸은 호주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수소를 활용, HBI의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포스코 관계자는 "친환경철 생산을 위한 원료회사를 설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실제 생산 전 단계로, HBI 생산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음

(헤럴드경제, 2023.08.17) 김성우 기자

### 2. SK온·에코프로·포드, 캐나다 양극재 합작공장 오늘 공식 발표

- SK온과 에코프로비엠, 미국 포드 간 캐나다 퀘벡주 양극재 합작공장 설립 프로젝트가 공식화됨 투자처를 확정하고, 현지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함
- SK온과 에코프로비엠, 포드가 베캅쿠아에 양극재 공장을 설립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 공장에서 생산된 양극재는 SK온과 포드의 배터리 합작사 '블루오벌SK' 생산시설에 납품됨
- 블루오벌SK는 미국 켄터키주 2곳, 테네시주 1곳 등 3곳에 총 129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시설을 짓고 있음 오는 2025~2026년 순차적으로 가동에 돌입할 계획임

(더구루, 2023.08.17) 정예린 기자

### 3. GS이니마, 9200억원 규모 UAE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

- GS건설 자회사이자 세계적인 수처리 업체 GS이니마가 오만에 이어 이번에 UAE까지 진출하며, 세계 최대 수처리시장인 중동에서도 글로벌 수처리업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됨
- GS건설은 GS이니마가 UAE 수·전력공사가 발주한 한화 약 9,200억원 규모의 슈웨이하트(Shuweihat) 4 해수담수화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음
- 이번 수주 계약 체결은 올해 1월 한국정부와 UAE의 수자원 협력 업무협약(MOU)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첫 사례임
- 사업 구도는 시공 후 운영권을 갖는 BOO (Build-Own-Operate)사업으로, GS이니마는 프로젝트 금융 조달과 EPC(설계·조달·시공)를 전담하고, 준공 후에는 TAQA(아부다비 국영전력회사)와 공동으로 30년 간 시설 소유권을 확보하고 운영을 하게 됨

(더퍼블릭, 2023.08.12) 홍찬영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8.11(금) ~ 2023.08.17(목)

제공일시 2023 08 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영국기업 공시 배출량은 실제 배출량의 1/3에 불과해...베인&CDP 연구

(인팩트온, 2023.08.14) 홍명표 기자

- 세계적인 컨설팅펌인 베인앤컴퍼니(Bain and Company)와 CDP의 공동 연구에 의하면, 영국 기업이 공시하는 배출량은 실제 배출량의 1/3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바꿔 말하면, **영국 기업의 탈탄소화 목표는 실제 배출량의 최대 36%만 포함하고 있다는 것임**
- 또한, 2030년까지 배출을 감축하기로 한 목표를 가진 기업의 21%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함
- 이번 연구는 기후에 관한 CDP를 통해 공개한 약 1450개의 영국 본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됐음. 대상 기업에는 FTSE 100 기업의 약 91%를 포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영국 기업의 스코프1과 2 배출량의 64%가 목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스코프3 배출량의 경우 69%가 감축 목표에서 누락됐음**
- 베인앤컴퍼니와 CDP의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영국 기업 중 21%는 현재 스코프1과 2 배출량에 대한 203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31%는 스코프3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CDP를 통해 공시하지 않거나, 목표를 설정하지 않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하지 않아서 영국의 넷제로 계획과 관련하여 궤도를 이탈한 기업의 전체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 정부가 넷제로 전략이 현재 1990년 수준에 비해 배출량을 60% 감축한다는 2030년 핵심 중간 목표를 놓치고 있다는 최근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임
- 현재 진행 상황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국 기업은 영국의 규제를 포함하여 해외의 규제에 뒤처질 위험에 처해 있음. 즉,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를 포함해서,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도 기후 전환 계획의 공개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보고서는 영국 기업에 대한 낙관론도 폈음. 먼저 **CDP를 통해 배출량 감축 목표를 공시하는 영국 기업의 수가 2020~2022년 사이 약 130% 증가했다는 점임**. 이는 연평균으로 치면 52%씩 증가한 수치임
- **또 영국 기업은 유럽이나 북미 기업보다 더 빠르게 탈탄소화하고 있음**. 영국기업은 CDP를 통해 공시한 이후 탄소배출량을 8% 줄였음.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서비스 산업은 배출량을 평균 12% 줄였으나 유럽은 7%, 북미는 6%만 줄였음
- 또한, 영국의 패션 산업은 12% 줄였지만, 북미와 유럽은 각각 7%, 5% 줄이는데 그쳤음
- CDP의 최고 커머셜 및 파트너십 책임자인 텍스터 갤빈(Dexter Galvin)은 이번 연구는 탈탄소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상당한 재정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음
- 즉, "효과적인 탈탄소 기업으로 분류된 회사는 탈탄소화 전략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재정적 기회를 포착한다. 이러한 기업은 탄소감축을 게을리 하는 기업보다 1.3배 더 많은 기회를 식별한다. 또한 탈탄소에서 더 가치있는 기회를 식별하며 평균적으로 각 기회에 대해 예상되는 평생 재정적 영향이 1.6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 설명했음